

허락되지 않은 면죄부: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 깊이 보기

오 영 인

I. 서론

“인생은 스승, 시간은 치유자(healer)
 그리고 나는 야생의 강과 같은 신자(believer)
 자존심은 살인자, 탐욕은 괴물이다
 그러나 사랑은 그들 모두보다 강하고 강하다
 손에는 백기, 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
 모래 위에 선은 없어, 난 네 편이야
 이제 우리 사이의 차이들은 제쳐두어야 할 때다.”
 - 영화 <치욕의 대지> OST 중

2017년 1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행정부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행정부로 정권교체 되었다. 일견 미국 민권운동 역사의 상징이자 가장 가시적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되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와는 전혀 다른 정책 성향과 신념을 내세운 트럼프는 선거운동 내내 인종주의적 발언들을 쏟아내며 백인 유권자들을 결집시켰다. 즉,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라는 자국 우선주의 슬로건 하에 전(全)지구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반(反)세계화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反)이민, 반(反)이슬람을 주장하며 인종간 혐오와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 미 연방수사국 FBI 통계에 의하면 스스로 인종주의자임을 드러내기 시작한 증오단체들은 2017년 926개에서 2019년까지 2년 사이 100개 이상이 증가한 1,030개였고 이중 백인우월주의 단체임을 당당히 밝힌 단체는 2017년 100여 개에서 2019년 거의 100% 증가

한 196개로 증가했다. 여기에 2019년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파된 COVID-19로 인해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까지 더해져 미국 내 증오단체들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¹⁾

우선 혐오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혐오 표현의 사전적 의미는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취향) 등에 기반을 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해 증오나 폭력을 유도할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경멸적이거나 차별적인 표현”이다.²⁾ 문제는 이러한 혐오가 범죄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 법무부가 규정하는 증오범죄는 “혐오를 바탕으로 폭행, 살인, 방화, 기물파손, 그리고 실제 저지르지 않더라도 범죄를 예고하고 위협, 혹은 청부하는 등을 포함하는 모든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 미국 사회의 증오범죄는 2021년 1만840건으로 전년도의 8천52건과 비교해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

그렇다면 인종혐오나 증오범죄가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분출된 것인가? 미국 역사에 있어서 인종갈등과 관련 범죄는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인종문제는 미국 사회에 있어서 변수가 아니고 상수이다. 특히 흑인과의 인종갈등은 그 역사가 길고 지독히 깊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 된 흑인과의 접촉이 악몽이 아닌 현실이 되자 미국은 흑인을 백인 사회에서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인종분리(Segregation)를 실시했다. 그와 함께 린치(Lynch) 등의 인종폭력을 행사하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흑인들을 실질적인 노예상태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과 차별은 사회 전반 구석구석에서 탄탄하게 재생산되었다. 그런데 1960년대 거대한 사회개혁의 물결 속에서 흑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위한 민권운동이 거세게 불어닥쳤고 1964년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은 학교나 작업장 그리고 모든 공공시설에서의 인종분리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듬해 1965년 투표권법(Voting

1) 인터넷 기술과 SNS 관계망의 발달로 인터넷 혐오단체 또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손쉽게 만들고 가입도 용이한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속 증오 집단은 특정 과별이나 집단에 웹메일 필요도 없이 혐오의 대상을 확대해가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계도 국경도 허물면서 넘나들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4062700009> (검색일: 2023년 10월 11일).

2) <https://dictionary.cambridge.org/us/dictionary/english/hate-speech> (검색일: 2023년 11월 01일)

3) <https://www.justice.gov/hatecrimes/learn-about-hate-crimes/chart> (검색일: 2023년 11월 01일)

Rights Act of 1965)으로 유색인들도 실질적인 참정권을 통해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민권법과 투표권법의 제정 60년을 맞이하는 지금 인종갈등과 차별은 사라졌는가? 인종분리라는 단어가 범조문에서는 지워졌을지 몰라도 인종혐오와 증오집단은 지금도 더 다양하고 정교한 외피를 쓰고 존재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증오집단은 “인종, 국가, 종교, 성별, 성적 취향 또는 기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적개심과 악의를 조장하여 폭력을 옹호하고 실행하는 사회집단”이다.⁴⁾ 미국 역사에서 쿠클럭스클랜(Ku Klux Klan: 이후 클랜)만큼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은 없다. 클랜은 1865년 12월 24일 남북전쟁 직후 남부연합군 출신 퇴역군인들이 처음 조직한 이후 성장과 쇠퇴 과정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미국의 상징적 증오집단이다. 전후 남부의 소위 ‘잃어버린 대의(Lost Cause)’를 되찾기 위해 조직된 클랜은 백인우월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인종차별적 폭력단체로 1871년 쿠클럭스클랜법(Ku Klux Klan Act of 1871)으로 해체되는 듯했으나 시기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오히려 증오의 대상을 흑인에서 반이민, 반카톨릭, 반유대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동성애 혐오 등으로 확대하며 오늘날까지 인종차별적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⁵⁾ 이러한 클랜의 폭력성

4) <https://dictionary.cambridge.org/us/dictionary/english/hate-speech> (검색일: 2023. 11. 01.)

5) 학계에서 그동안 클랜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클랜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 클랜의 조직과 확장 전략, 클랜의 종교적 신념과 상업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주제가 소개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 참조. Arnold S. Rice, *The Ku Klux Klan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Haskell, 1972); David M. Chalmers, *Hooded Americanism: The History of the Ku Klux Klan* (New York: F. Watts, 1981); Leonard J. Moore, *Citizen Klansmen: The Ku Klux Klan in Indiana, 1921-1928*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Roland G. Fryer Jr. and Steven D. Levitt, “Hatred and Profits: Under the Hood of the Ku Klux Kla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7-4(2012), pp. 1883-1925; Paul Easterling, “KKK Christology: A Brief on White Class Insecurity,” in Stephen C. Finley, Biko Mandela Gray, Lofi Latrice Martin (eds.), *The Religion of White Rage: Religious Fervor, White Workers and the Myth of Black Racial Progres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0), pp. 125-134. 여성 클랜에 대한 연구는 다음 참조. Kathleen M. Blee, *Women of the Klan: Racism and Gender in the 1920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Nancy Maclean, *Behind the Mask of Chivalry: The Making of the Second Ku Klux Kl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을 시의적절한 시기에 영화화한 작품이 <치욕의 대지(Mudbound)>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 1월에 개봉한 <치욕의 대지>는 극작가이자 영화감독인 디앤드리아 리스(Diandra Rees)가 힐러리 조던(Hillary Jordan)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골든 글로브를 비롯해 아카데미와 오스카 시상에서 각색상, 촬영상, 여우조연상 등 7개 이상 부문에 후보를 올리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남부 미시시피가 시공간적 배경인 이 영화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흑인과 백인 참전 병사를 중심으로 인종혐오의 잔혹성을 다룬 이야기이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소작농 백인 가족을 등장시켜 계급 갈등과 젠더 문제까지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

물론 미국 남부에서 클랜이 자행한 흑인에 대한 인종폭력을 다룬 영화가 <치욕의 대지>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이 영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영화를 통해 클랜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클랜에 대한 연구는 1기부터 4기 혹은 첫 번째 클랜부터 네 번째 클랜까지로 그 역사적 시기를 도식적으로 나누어 클랜의 성장과 쇠퇴를 분절적으로 다뤘었다. 도식적으로 정리하자면, 1기 클랜은 1865년을 시작으로 1871년 클랜법으로 사라졌다가 1915년을 기점으로 2기 클랜이 부활했고 1944년 탈세 문제로 다시 해산되었다가 1960년대 민권운동의 반작용으로 3기 클랜이 재등장했다. 이후 1965년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의 강경 대응으로 소멸되었으나 1970년대 말 경제적 불안으로 마지막 4기가 재부활했다는 것이다.⁶⁾ 그러나, 미국에서 인종갈등과 혐오의 역사가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며 지속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클랜의 활동 또한 한 번도 소멸되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 특히 클랜의 역사 중 전국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전성기를 누렸다고 평가되는 2기 클랜은 1944년 해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국적 조직은 와해되었을지 모르나 지

1994); Linda Gordon, *The Second Coming of the KKK: The Ku Klux Klan of the 1920s and the American Political Tradition* (New York: Liveright, 2017). 국내 연구로는 다음 참조. 안윤모, 「1920년대 쿠클럭스클랜과 도덕 개혁」, 『미국사연구』, 17호(2003), 77-98쪽; 황혜성, 「1920년대 KKK: 하얀 두건, 검은 속셈」, 『서양사론』, 122호(2014), 82-111쪽; 김인선, 「1920년대 여성쿠클럭스클랜의 활동과 KKK의 성정치」, 『여성과역사』, 37호(2022), 215-253쪽.

6) 안윤모, 「1920년대 쿠클럭스클랜과 도덕개혁」, 77쪽; 황혜성, 「1920년대 KKK: 하얀 두건, 검은 속셈」, 82-83쪽.

역의 클랜맨(Clan-man)들의 활동은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개별 주, 카운티, 그리고 타운에서 그 기세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영화 <치욕의 대지>는 바로 이 시기 어떻게 잔인한 인종폭력이 지역에서 계속 자행되었는가를 증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 이 영화는 클랜의 지속성이 클랜의 본질인 지역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충분한 레퍼런스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영화 <치욕의 대지>를 통해 클랜의 지역성 혹은 지역문화가 어떻게 작동했으며 어떤 근거와 논리로 인종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는지 그 행태를 클랜의 긴 역사성 속에서 재고해보고자 한다.

II. 영화이야기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는 소설가 힐러리 조던의 처녀작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조던의 소설은 인종차별의 아물지 않은 어찌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으며 소설이 출간되기도 전인 2006년 미출판 처녀작에 주는 벨웨더상(the Bellwether Prize)을 수상하기도 했다. 소설의 모티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조던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실제로 도시에서 갑자기 남부 아칸소의 작은 시골 농가로 이사하면서 경험한 고단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반복적으로 나누던 일상의 대화였다.⁷⁾ 그렇게 전쟁의 상흔을 겪어야 했던 백인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소설은 점차 더 다양한 사람들의 더 많은 목소리, 특히 일상에서 암묵적으로 침묵 당한 목소리를 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짐 크로우(Jim Crow) 남부를 그저 역사책에서만 읽는 것과 실제 멀쩡한 버스 기사가 흑인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며 풍만한 백인 여성이 앉을 수 있게 입 닦치고 고개 숙여 버스에서 내리라고 으박지르는 현장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입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⁸⁾ 조던에게 미국 남부는 하나의 지역적 설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 행동하는 중요한 캐릭터이기도 했다. 남부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이기에 그러하다.

영화 <치욕의 대지>는 1945년 이후 남부 미시시피의 영세한 농장주인 백

7) Edward Piacentino, “Hillary Jordan’s *Mudbound* and the Neo-Segregation Narrative,” *The Mississippi Quarterly*, 67-2(2014), pp. 268-270.

8) *Ibid.*, p. 267, 재인용.

인 가족과 그 농장의 소작농인 흑인 가족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로, 등장 인물들이 각자의 입장을 독백형식으로 이끌어나간다.⁹⁾ 영화에 등장하는 백인의 캐릭터는 3가지로 구분된다. 흑인을 인간 이하로 간주하는 전형적인 남부 클랜맨(Klan-man)인 주인공의 아버지와 흑인을 노예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인종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주인공의 형, 그리고 흑인과 거리낌 없이 소통하는 주인공 제이미이다.¹⁰⁾

영화는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던 아버지를 매장하기 위해 백인 형제가 진흙을 파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원래 도시에 살고 있었던 형 부부와 아버지는 농장주가 꿈이었던 장남의 의지로 농장의 저택으로 이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주택 사기를 당해 흑인거주지역인 농장 근처로 이사하면서 소작농이었던 주인공 론셀 가족과의 관계가 설정된다. 주인공 제이미와 론셀은 2차 대전에서 각각 공군 조종사와 전차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전후 고향인 미시시피로 돌아와 전역 군인으로 마주한다. 두 사람은 똑같이 전쟁을 경험했으나 그 의미는 서로 달랐다. 전투기에 동승한 전우가 바로 옆에서 피를 쏟으며 전사하는 것을 목격한 제이미는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코올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로 돌아와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나 론셀에게 전쟁은 짐 크로우 남부 고향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금지된 자유와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전쟁에서 나는 나라를 위해 죽음으로 맞서 싸운 군인이자 나치로부터 민간인을 구한 해방자였다”는 론셀의 독백에서 절기가 느껴진다.

고향으로 돌아온 론셀이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시내 식품점이었다. 가족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다. 론셀은 이곳에서 제이미의 아버지를 비롯해 건장한 백인들과 정문에서 부딪치는데 이때 백인들은 군복 입을 론셀을 밀치며 흑인은 뒷문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제한다. 론셀은 비로소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은 고향과 마주하게 되고 미시시피에서 자신은 그저 니그로일 뿐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셀은 고개 숙이지 않고 백인들 정면에서 “전쟁에서 우리는 뒤가 아니라 전선 가장 앞에서 싸웠다”는 말을 뒤로 한 채 가족에게 향한다.

9) 거의 모든 주요 인물들은 화자로서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유일하게 독백 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제이미의 아버지이다.

10) <http://realfolkblues.net/?p=177> (검색일: 2023년 10월 24일).

미시시피의 여느 백인들과는 다르게 전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제이미는 론셀과 전쟁이라는 공감대로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진다. 특히 제이미는 공중에서 적군의 폭격으로 생명이 위협한 상황에서 자신을 엄호해주었던 생명의 은인인 흑인 폭격 조정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론셀에게 전우로 다가간다. 둘은 자주 어울렸다. 흑인의 자리인 트럭의 짐칸이 아닌 옆자리에서 같이 운전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전쟁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다. 처음엔 그런 제이미의 호의를 의심했던 론셀도 독일에서 만난 백인 여성과의 사랑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공감과 호의만으로 바뀌는 것은 없었다. 백인우월주의 자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았던 오히려 터부시되었던 행위인 니그로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못마땅해 하던 제이미의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는 아들을 심하게 다그쳤고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는 제이미가 운전하던 트럭에서 론셀이 떨어뜨린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고 영화는 절정으로 흐른다. 사진은 론셀의 백인 연인이 보낸 사생아 아들과 찍은 것이었다. 백인 순혈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100% 아메리카니즘을 유지하고자 했던 남부 백인들에게 백인 여성의 순결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고 론셀의 사진 한 장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우) 론셀의 백인 연인과 사생아 아들의 사진; 좌) 백인 여성과의 혼교를 응징하는 KKK
출처: 영화 <치욕의 대지>

노예해방 이후 미국에서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 간의 혼교는 철저히 통제되었다. 이유는 노예 신분이 모계를 승계하였기에 백인 여성의 혼혈아 출산은 인종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야만적 흑인과의 인종 간 혼교에 대한 백인들의 반응은 히스테리적이었고 그렇게 갑자기 흑인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남부 백인 정치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실제로, 놀랍게도 1967년까지 미국의 50개 주 중 40개가 넘는 주에서 혼종결혼금지법(Anti-miscegenation laws)을 유지하였다. 이는 명백히 백인의 순수혈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였다고 할 수 있다.¹¹⁾

백인 여성과의 혼교라는 중대범죄의 증거를 확보한 제이미의 아버지는 재빠르게 타운의 지역 클랜을 소집했다. 인종폭력집단으로 악명 높은 KKK의 등장이었다. 이 시기는 이미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하며 승승장구했던 클랜이 탈세 문제로 해산을 명령받은 이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백인 연대는 굳건했다. 흑인의 범죄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아무런 부끄럼도 두려움도 없이 당당히 나타난 클랜들은 론셀을 발가벗기고 목을 매달아 단죄하기 시작한다. 더 잔인한 것은 제이미의 아버지가 그 단죄의 방법을 아들에게 직접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이다. 제이미는 적국(敵國)인 독일 여성을 인종적으로 더럽힌 것이 무슨 문제냐며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실어 울부짖었다. 그러나 클랜의 광기 어린 폭력 앞에서 제이미의 저항과 항변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혀가 잘려나가는 것으로 목숨을 부지한 론셀은 억울함에 오열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유일하게 전쟁의 트라우마를 공유했던 전우를 전쟁터가 아닌 고향에서마저 또 한 번 잃게 된 제이미는 론셀에 대한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를 살해하는 천륜을 거스른 재앙을 저지르고 만다.

론셀의 아버지는 자식을 불구로 만든 원수의 농장에서 더 이상 소작을 할

11) Martha Hodes, “The Sexualization of Reconstruction Politics: White Women and Black Men in the South after the Civil War,”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3-3(1993), p. 403. 이외 미국 내 인종 간 혼종결혼을 둘러싼 논의에 대한 연구 성과를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 참조. Randall Kennedy, *Interracial Intimacy: Sex, Marriage, Identity, and Adoption* (New York: Vintage Books, 2003); Peggy Pascoe, “Miscegenation Law, Court Cases, and Ideologies of ” Race “ in twentieth-Century America,” in Vicki L. Ruiz and Ellen Carol DuBois (eds.), *Unequal Sisters: A Multicultural Reader in U. S. Women’s History* (New York: Routledge, 2000); Glenda Elizabeth Gilmore, *Gender and Jim Crow: Women and the Politics of White Supremacy in North Carolina, 1896-192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수 없어 이사를 결심한다. 마차에 짐을 싣고 이동하는 도중 제이미 아버지의 관을 묻는 작업을 도와달라는 농장주의 부당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면서 짧지만 단호한 어조로 답한다. “내 아이들은 마차에서 내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 . .” 뒤이어 내뱉지 못하고 삼킨 말은 아마도 다음 세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 정도의 저항도 하지 않는다면 지독한 인종폭력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는 울분이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론셀은 소리를 낼 수 없는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사랑하는 아들과 연인이 있는 독일로 떠났고 제이미 또한 평생의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가슴에 품고 고향을 떠나면서 영화는 끝을 맺는다.

III. KKK: 클랜의 지속성과 지역적 본질

미국 역사를 통틀어 인종갈등과 인종폭력의 가장 상징적 집단은 쿠클럭스 클랜(Ku Klux Klan)이다. 남북전쟁 직후 남부군의 장군이었던 네이던 포레스트(Nathan Forrest)를 중심으로 6명의 퇴역군인들이 테네시 주 풀라스키(Pulaski, Tennessee) 타운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조직한 비밀 사조직이 그 시작이었다. 전후 ‘잃어버린 대의(Lost Cause)’를 되찾기 위해 조직된 클랜은 백인우월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해방 노예에게 허용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을 차단하기 위해 화형이나 린치 등의 폭력을 휘두르며 강력히 저항했다. 작은 사조직으로 시작한 클랜은 재건기 신남부의 전쟁세대 백인들의 상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전쟁과 패배, 그리고 재건의 공통된 역사 경험과 좌절과 절망이라는 감정을 공유하며 소수집단 심리를 자극했다. 전후 남부의 무력감과 열세의식이 백인우월주의라는 집단적 방어기제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¹²⁾

그런데 클랜의 과격한 폭력성은 선을 넘고 있었고 그로인해 1871년 연방 의회는 클랜법(Ku Klux Klan Act of 1871)으로 조직의 활동을 막아보고자 했다. 문제는 이미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던 흑인에 대한 인종증오는 꺼지지 않았고 남부 내 개별 주, 카운티, 타운 등에서 지역주민들의 암묵적인 지지를 발판으로 작은 불씨들을 계속 살려나갔다는 점이다. 실제로 1877년 남부에서 연방군대가 철수하자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활동은 은밀하게 밤에만 자행되던 폭력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미리 지역 신문에 린치장소

12) 황혜성, 「1920년대 KKK: 하얀 두건, 검은 속셈」, 88쪽.

를 광고해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가듯 혹은 페스티벌을 즐기듯 하나의 지역문화로 받아들일 만큼 인종폭력의 대중성을 확보해나갔다. 전후 해방 노예 흑인은 그렇게 신남부 백인들을 결집하는 지역의 희생양이 되었다.

500명은 족히 넘어 보이는 백인들이 어떤 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또 어떤 이는 아들을 목마 태우고 한명의 감동이가 불에 타서 재가 되는 과정을 지루하다는 듯 지켜본다. 타들어가는 니그로는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거나 살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불이 약해지면 꺼질세라 사람들은 마른 잎을 불구덩이에 던진다. 그때 군중 무리 중 두 명의 남성이 울부짖고 있던 니그로의 아내와 어린 딸을 강제로 끌고 와 남편의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도록 머리채를 치켜들어 보인다. 그 옆의 제복 차림의 지역 관리들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다.¹³⁾

1890년 멤피스의 한 기자가 흑인의 화형 집행을 목격하고 기록한 것이다. 화형이나 린치는 남부 백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인종폭력이었다. 본래, 린치는 노예해방 이전 서부에서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나 사적 보복이 필요할 때 실시하던 서부의 전유물이었다. 따라서 당시 서부에서 린치의 대상자는 살인이나 절도로 잡힌 백인들이었다. 그런데 노예해방 이후 남부에서 린치는 노예 채찍을 대신하게 되었고 백인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폭력 행위가 되었다.¹⁴⁾ 물론 정확히 얼마나 많은 흑인이 희생당했는지 그 숫자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예해방 이후 19세기까지 미국 전체 인구의 10%가 흑인이었고 그 중 40% 정도가 남부에 거주했다. 그런데 그 중 73%가 린치나 화형을 당했고 희생자 중 95%가 노예출신이었다고 한다.¹⁵⁾

린치의 이유는 대부분 흑인의 불손함과 백인 여성 강간이었다. 흑인의 불손함이란 흑인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백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거나 백인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하거나 법정에서 백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경우 등이었다. 무엇보다 백인의 피를 더럽혀 인종질서를 위협하는 흑인

13) James W. Clarke, "Without Fear or Shame: Lynching, Capital Punishment and the Subculture of Violence in the American South,"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2(1998), p. 270.

14) James W. Clarke, "Without Fear or Shame," pp. 271, 274.

15) *Ibid.*, p. 282.

의 백인 여성에 대한 강간은 가장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였다. 그런데 흑인 남성의 성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로 간주되면서 실제 행위여부와 그 진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단순히 백인의 추측과 편견, 그리고 말도 안되는 오해로 상상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헤아릴 수 없었다.¹⁶⁾

1871년 클랜법도 흑인에 대한 잔혹행위를 막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연방대법원이 너무도 안이하게 클랜법을 해석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클랜법이 단지 특정 남부 주를 상대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백인의 사적 린치행위를 용인했다.¹⁷⁾ 심지어 남부 백인들은 린치를 정당화하기까지 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린치는 시민의 주권을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 성문법 권한 밖에서 설정된 권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린치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집행되는 행위이고 비전문적 법의 집행은 주민과 가까운 지역공동체의 당연한 임무이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부의 지역 언론마저 이에 가세하여 린치를 단순한 지역의 사적이고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지역 대중문화로 스며들었다.¹⁸⁾ 여기에 연방의 공권력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연방 개입에 대한 남부인들의 강한 반감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실제로 일부 린치에 반대하는 백인이라 하더라도 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주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연방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남부 백인들에게 연방의 개입은 집단의 광기어린 폭력보다 더 무섭게 비난받을 일이었다.¹⁹⁾

상황이 이러하자 린치에 대한 지방 법원의 태도도 문제로 지목되었다. 사실 린치사건이 법원에 상정되는 일도 드물었지만 상정된다 해도 법원의 냉철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다. 린치가 사적으로 시행될 때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방 법원은 법을 만드는 것은 개개인 시민의 힘이고 그들이 만장일치로 행한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이에 법학자들은 지방 법원의 무능력이 남부의 증오폭력을 방치하는 원인이라 꼬집었다. 1898년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찰스 보나파르트

16) *Ibid.*, p. 280.

17) 황혜성, 「1920년대 KKK: 하얀 두건, 검은 속셈」, 83쪽; Christopher Waldrep, *African Americans Confront Lynching* (New York, 2009), pp. 9-12.

18) Christopher Waldrep, "National Policing, Lynching, and Constitutional Change,"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74-3(2008), pp. 592-594.

19) James W. Clarke, "Without Fear or Shame," p. 283.

(Charles Bonaparte)는 “법은 만인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 집행 또한 만인의 이해에 복종해야한다. 여기서 특정 인종이나 특정 범죄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도 린치에 대한 개별지역의 사적통제를 용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즉, “법은 만인의 의지가 모인 집성체이고 그 집행을 개인의 판단과 통제에 맡겨두는 것은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를 잘못 인식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1905년 미국 학계에 있어서 린치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서로 평가되는 『린치법: 미국의 린치 역사에 대한 연구조사』를 편찬한 제임스 커틀러(James Elbert Cutler) 또한 서부도 남부도 린치라는 중대 폭력을 개인이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커틀러에 따르면 사형에 처할 만큼의 중대범죄는 반드시 주권자의 법적 대리인인 사법체계 내에서 작동시켜야 하며 범망을 넘어 집행되는 폭력은 그 어떤 정당성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소수에 그쳤다. 오히려 백인의 특권을 지켜내지 못하는 법조인들의 이런 태도는 법에 대한 냉소주의적 반감만 증폭시켰고 결국 클랜은 스스로가 곧 법이고 정의가 되었다.²⁰⁾

남부 (전)노예주에서의 린치 상황, 1882-1962

주	평균흑인 인구	비흑인 희생자 수	흑인 희생자 수	총 희생자 수	흑인 희생자 비율
앨라배마	39%	49	229	348	86%
아칸소	26%	58	226	284	80%
플로리다	34%	25	257	282	91%
조지아	40%	39	491	530	93%
루이지애나	41%	56	335	391	86%
메릴랜드	18%	2	27	29	93%
미시시피	52%	40	538	578	93%
북캐롤라이나	30%	15	85	100	85%
남캐롤라이나	50%	4	156	160	98%
테네시	20%	47	204	251	81%
텍사스	17%	191	352	493	71%
버지니아	30%	17	83	100	83%
총계	29%	609	3,264	3,873	84%

출처: Department of Records, and Research, Tuskegee Institute, Alabama; James W. Clarke, “Without Fear or Shame,” p. 282

20) Cristopher Waldrep, “National Policing, Lynching, and Constitutional Change,” pp. 595-596.

20세기를 넘어가면서 클랜은 그 조직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해 나갔고 인종폭력의 논리 또한 정교하게 발전시켜나갔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클랜 임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 아래 18세에 미서전쟁(1898년)에 참전했던 윌리엄 시몬스(William Simmonse)는 애국심과 백인우월주의에 심취되어 있었다. 재건기 북면을 쓴 클랜의 활동을 영웅으로 미화한 무성영화 <국가의 탄생(The Birth of a Nation)>을 수없이 반복 감상하면서 클랜에 대한 환상을 키워온 시몬스는 1915년 클랜을 공식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1916년 시몬스는 클랜을 “신성하고 애국적인 비밀자선단체”로 등록하고 이를 ‘보이지 않는 제국(Invisible Empire)’라 칭하며 스스로가 최고의 지도자인 ‘제국의 마법사(Imperial Wizard)’가 되었다.²¹⁾

초창기 조지아 주를 중심으로 지역의 회원을 모집하며 흩어진 남부의 세력을 규합해나가던 클랜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세기말 미국사회의 불안정 때문이었다. 20세기 전환기 미국은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훨씬 다양해진 이민자들의 유입에 의한 문화충돌은 물론이고 경제구조의 격변 속에서 계층/계급 간 불평등은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남부의 흑인들도 일자리를 찾아 북서부로의 대이주(Great Migration)를 감행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불만들이 폭발했다. 클랜의 입장에서 이는 흑인 이외 반(反)이민, 반(反)외국인, 반(反)카톨릭 반(反)유대인 등으로 혐오 대상의 확장을 의미했다. 여기에 1차 세계대전과 볼셰비키 혁명은 적색공포를 수반하며 애국심과 반공주의를 묘하게 결합시켰다. 인종문제는 물론이고 계급, 계층, 젠더 등과 관련된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갈등 속에서 불안해하던 미국인들에게 클랜은 ‘미국인을 위한 미국’ 혹은 ‘100% 미국인’이라는 틀로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

중요를 기반으로 한 심리적 교감뿐 아니라 세기 전반기 클랜의 성장은 상업적 이익창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했다. 이제 클랜이 되기 위해 그냥 충성을 맹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입단비, 연회비, 망토나 마스크 등의 제복비용과 각종 비품구입비 등 다양한 항목의 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클랜 조직은 이를 통해 꾸준하게 이윤을 창출했다.

21) 안윤모, 「1920년대 쿠킨클릭스클랜과 도덕개혁」, 78~79쪽; 황혜성, 「1920년대 KKK: 하얀 두건, 검은 속셈」, 92~93쪽.

클랜의 조직도와 상업성을 꼼꼼하게 분석한 경제학자 로랜드 프라이더(Roland G. Fryer Jr.)나 스티븐 레빗(Steven D. Levitt)에 따르면, 20세기 전반기 클랜은 증오와 형제애라는 인간의 감정을 다층적 마케팅을 통해 매우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사회조직이었다.²²⁾

이렇게 성장했던 시몬스의 클랜은 일반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기를 거치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여 1944년 소득세 탈세 문제로 해체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전국적 조직이 와해되고 그 기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나 클랜의 본질인 지역성은 각 공동체, 카운티, 타운에서 쉽 없이 들끓고 있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에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그대로 투영되어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으로 다가왔다. 당장에 지역 곳곳에서 참전 영웅이나 된 듯 애국심으로 당당해진 제복 입은 흑인의 모습은 백인들에겐 강력한 위협이었다. 게다가 진화론을 공론화하고 마약 밀매가 성행하는 등 미국이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있다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 약해진 연대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런 사회적 불안은 과거 형제애로 단결되었던 정직한 백인 미국 신교도들만의 세상에 대한 환상을 다시 끄집어냈다. 지역의 타운이나 카운티에서 클랜의 존재는 혼란하고 분노한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해줄 든든한 해결사로 낭만화 되고 있었던 것이다.²³⁾ 영화 <치욕의 대지>는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개별 지역 백인우월주의자들의 결속력이 어떻게 린치와 인종폭력을 정당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클랜의 지역성은 클랜이 시대를 막론하고 지속될 수 있는 본질적 근거였다. 남북전쟁 이후 재건기와 1, 2 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 이후 남부 백인들은 불안한 사회에서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했던 것을 복구시켜 몰두하는 것이 백인의 결집과 공동체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

22) 20세기 전반 클랜 조직의 구체적인 조직도와 이윤창출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전체논문 참조. Roland G. Fryer Jr. and Steven D. Levitt, "Hatred and Profits: Under the Hood of the Ku Klux Klan," p. 1883; 황혜성, 「1920년대 KKK: 하얀 두건, 검은 속셈」, 100-107쪽.

23) Rory McVeigh and David Cunningham, "Enduring Consequences of Right-Wing Extremism: Klan Mobilization and Homicides in Southern Countries," *Social forces*, 90-3(2012), pp. 943-944

지역에서 함께 종교행사를 진행하고 십자가놀이나 지역정화운동, 혹은 사회적 이벤트도 후원하면서 회원들은 클랜 안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었다. 클랜에게 지역 공동체 내 유대와 연대는 종교적 신념과 같았고 그 힘이 클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²⁴⁾

IV. 결론

1985년 1월 테네시 주 풀라스키(Pulaski, Tennessee) 타운에서 경악할만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1월의 국가적 연례행사인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의 기념일을 반대하며 클랜 창단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풀라스키 클랜댄들이 “귀향 행진”이라는 퍼레이드를 벌였다는 것이다. 행렬의 선봉에 선 남성은 1865년 클랜의 창시자 6인의 이름과 장소를 기념하는 명판을 들고 있었다. 행사를 계획하고 주도한 클랜 후손과 회원들은 인터뷰에서 퍼레이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클랜은 더 이상 다른 인종의 대항세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구원세력이다. 유색인협회나 유대인협회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본 퍼레이드의 목적이다.”²⁵⁾ 그뿐이 아니다. 1989년에는 위스콘신 대학신문에 <클랜을 기리며(Memories of the Ku Klux Klan Honorary Society)>라는 기고문이 실리고 1920년대 연중 행사였던 흑인 분장쇼 사진들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진행되는가 하면 2009년에는 프린스턴 졸업생 주간지(Princeton Alumni Weekly: PAW)에 “클랜 멤버들의 1920년 강의”라는 꼭지의 소개 글이 실리기도 했다.²⁶⁾

이런 현실과는 다르게 영화 <치욕의 대지>는 곳곳에서 인종 간 교감과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제이미와 론셀의 만남에서 제이미는 늘 론셀의 마음을 살핀다. 자기 아이를 사생아로 낳아 키우는

24) 안윤모, 「1920년대 쿠클럭스클랜과 도덕개혁」, 92-93쪽.

25) Michael Lewis and Jacqueline Serbu, “Kommemorating the Ku Klux Klan,” *The Sociological Quarterly*, 40-1(1999), pp. 139-140.

26) Timothy Messer-Kruse, “Memories of the Ku Klux Klan Honorary Society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The Journal of Blacks in Higher Education*, 23-1(1999), pp. 83-93. John S. Weeren, “Shades of Ku Klux Klan: The Class of 1920’s “Fiery Fourth”,” *The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Chronicle*, 71-1(2009), pp. 89-98.

연인에게 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에 남겨질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망설이는 론셀에게 스스로 만든 본인의 가족과 행복하길 기원하기도 하고, 형과의 갈등으로 미시시피를 떠날 결심을 했을 때도 망설이지 않고 론셀에게 찾아가 서로에게 친구였음을 확인한다. 또한 아버지를 비롯해 타운의 클랜에게 둘러싸여 생명을 위협받던 론셀을 위해 진심으로 저항하며 고통을 함께하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본인에겐 속죄 받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이지만 제이미는 아버지의 죽음이 론셀 가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론셀이 빼앗겼던 가족사진을 찾아준다. 물론 이러한 통합의 메시지들은 매우 중요하고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두 명의 백인이 느끼는 공감이나 죄책감만으로 상처에 상처가 얹고 다시 덧나는 그 오랜 기간을 견뎌온 피해자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백인이 기대하는 면죄부는 피해자들이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허락받지 못한 면죄부가 아닐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여러 다른 외피로 위장한 클랜들이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지금 KKK나 인종문제를 이야기해야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원작자 힐러리 조던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지금은 탈인종(post-racial) 탈인권(post-civil rights)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과연 넘어섰다(post)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해묵은 이야기 같지만 과거의 짐 크로우는 어떠했고 현재의 짐 크로우는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거기에서부터 향후 펼쳐질 짐 크로우가 어떠할지 아니면 그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상이 될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⁷⁾

평택대학교, 조교수, yioh@ptu.ac.kr

주제어(Key Words):

치욕의 대지(mudbound), 인종분리정책(Separate-but-Equal), 큐클러스클랜(Ku Klux Klan), 지속성(Continuity), 지역성(Locality)

투고일: 2023.10.23. 심사일: 2023.11.23. 게재확정일: 2023.11.23.

27) Edward Piacentino, “Hillary Jordan’s *Mudbound* and the Neo-Segregation Narrative,” p. 289, 재인용.

<국문초록>

**허락되지 않은 면죄부: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 깊이 보기**

오 영 인

본 연구는 미국에서 인종혐오와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에 주목한다. 본고가 이 영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영화를 통해 클랜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클랜에 대한 연구는 1기부터 4기 혹은 첫 번째 클랜부터 네 번째 클랜까지로 그 역사적 시기를 도식적으로 나누어 클랜의 성장과 쇠퇴를 분절적으로 다뤄왔다. 도식적으로 정리하자면, 1기 클랜은 1865년을 시작으로 1871년 클랜법으로 사라졌다가 1915년을 기점으로 2기 클랜이 부활했고 1944년 탈세 문제로 다시 해산되었다가 1960년대 민권운동의 반작용으로 3기 클랜이 재등장했다. 이후 1965년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의 강경 대응으로 소멸되었으나 1970년대 말 경제적 불안으로 마지막 4기가 재부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인종갈등과 혐오의 역사가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며 지속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클랜의 활동 또한 한 번도 소멸되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 특히 클랜의 역사 중 전국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전성기를 누렸다고 평가되는 2기 클랜은 1944년 해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국적 조직은 와해되었을지 모르나 지역의 클랜맨(Clan-man)들의 활동은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개별 주, 카운티, 그리고 타운에서 그 기세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영화 <치욕의 대지>는 바로 이 시기 어떻게 잔인한 인종폭력이 지역에서 계속 자행되었는가를 증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 이 영화는 클랜의 지속성이 클랜의 본질인 지역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충분한 레퍼런스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영화 <치욕의 대지>를 통해 클랜의 지역성 혹은 지역문화가 어떻게 작동했으며 어떤 근거와 논리로 인종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는지 그 행태를 클랜의 긴 역사성 속에서 재고해보고자 한다.

<Abstract>

**Unacceptable Indulgence:
Deep Learning from a Movie “Mudbound”**

Oh, Young In

This study focuses on the movie <Mudbound>, which was released at a time when racial hatred and related crimes began to rapidly increase in the United States. The reason this paper focuses on this film is because the continuity of the Clan can be confirmed through this film. In general, research on clans in academia has dealt with the growth and decline of clans in a segmental manner by schematically dividing the historical period from the 1st to the 4th period, or from the first clan to the fourth clan. To summarize schematically, the first clan started in 1865 and disappeared under the Clan Act of 1871, and the second clan was revived starting in 1915. It was disbanded again in 1944 due to tax evasion issues, and was reorganized into the third clan as a reaction to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1960s. Afterwards, it was extinguished in 1965 due to President Lyndon B. Johnson’s hard-line response, but the last fifth clan was revived due to economic instability in the late 1970s. However, just as the history of racial conflict and hatred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clan’s activities have never been extinguished or disappeared. In particular, the second clan, which is considered to have enjoyed its heyday for the longest period of time nationwide in the clan’s history, is known to have been disbanded in 1944. But while the national organization may have disintegrated, the activities of local clan-men continued to hold strong in individual states, counties, and towns even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The film <Mudbound> proves how brutal racial violence continued to occur in the region during this period. In other words, this film can be said to be a sufficient reference to show that the continuity of the clan is based on locality, which is, in fact, the essence of the clan. Accordingly, through the movie <Mudbound>, this paper seeks to reexamine how the locality or local culture of the clan worked and on what basis and logic racial violence could be justified within the clan’s long history.

참고 문헌

1. 단행본

- Blee, Kathleen M., *Women of the Klan: Racism and Gender in the 1920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 Chalmers, David M., *Hooded Americanism: The History of the Ku Klux Klan* (New York: F. Watts, 1981).
- Gilmore, Glenda Elizabeth, *Gender and Jim Crow: Women and the Politics of White Supremacy in North Carolina, 1896-192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 Gordon, Linda, *The Second Coming of the KKK: The Ku Klux Klan of the 1920s and the American Political Tradition* (New York: Liveright, 2017).
- Kennedy, Randall, *Interracial Intimacy: Sex, Marriage, Identity, and Adoption* (New York: Vintage Books, 2003).
- Maclean, Nancy, *Behind the Mask of Chivalry: The Making of the Second Ku Klux Kl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Moore, Leonard J., *Citizen Klansmen: The Ku Klux Klan in Indiana, 1921-1928*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 Rice, Arnold S., *The Ku Klux Klan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Haskell, 1972).
- Waldrep, Christopher, *African Americans Confront Lynching* (New York, 2009).

2. 논문

- 김인선, 「1920년대 여성쿠클릭스클랜의 활동과 KKK의 성정치」, 『여성과역사』, 37호(2022), 215~253쪽.
- 안윤모, 「1920년대 쿠클릭스클랜과 도덕개혁」, 『미국사연구』, 17호(2003), 77~98쪽.
- 황혜성, 「1920년대 KKK: 하얀 두건, 검은 속셈」, 『서양사론』, 122호(2014),

82~111쪽.

- Clarke, James W., "Without Fear or Shame: Lynching, Capital Punishment and the Subculture of Violence in the American South,"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2(1998), pp. 269-289.
- Easterling, Paul, "KKK Christology: A Brief on White Class Insecurity," in Stephen C. Finley, Biko Mandela Gray, Lofi Latrice Martin (eds.), *The Religion of White Rage: Religious Fervor, White Workers and the Myth of Black Racial Progres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0), pp. 125-134.
- Fryer Jr. Roland G., and Levitt, Steven D., "Hatred and Profits: Under the Hood of the Ku Klux Kla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7-4(2012), pp. 1883-1925.
- Hodes, Martha, "The Sexualization of Reconstruction Politics: White Women and Black Men in the South after the Civil War,"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3-3(1993), pp. 402-417.
- Lewis, Michael, and Serbu, Jacqueline, "Kommemorating the Ku Klux Klan," *The Sociological Quarterly*, 40-1(1999), pp. 139-158.
- Pascoe, Peggy, "Miscegenation Law, Court Cases, and Ideologies of Race " in twentieth-Century America," in Vicki L. Ruiz and Ellen Carol DuBois (eds.), *Unequal Sisters: A Multicultural Reader in U. S. Women's History* (New York: Routledge, 2000).
- Piacentino, Edward, "Hillary Jordan's Mudbound and the Neo-Segregation Narrative," *The Mississippi Quarterly*, 67-2(2014), pp. 267-290.
- McVeigh, Rory and Cunningham, David, "Enduring Consequences of Right-Wing Extremism: Klan Mobilization and Homicides in Southern Countries," *Social forces*, 90-3(2012), pp. 843-862.
- Messer-Kruse, Timothy, "Memories of the Ku Klux Klan Honorary Society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The Journal of Blacks in Higher Education*, 23-1(1999), pp. 83-93.
- Waldrep, Cristopher, "National Policing, Lynching, and Consitutional Change,"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74-3(2008), pp. 589-626.

허락되지 않은 면죄부: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 깊이 보기

Weeren, John S., “Shades of Ku Klux Klan: The Class of 1920’s “Fiery Fourth” ,” The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Chronicle, 71-1(2009), pp. 89-98.

3. 인터넷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4062700009> (검색일: 2023년 10월 11일).

<https://dictionary.cambridge.org/us/dictionary/english/hate-speech> (검색일: 2023년 11월 01일).

<https://www.justice.gov/hatecrimes/learn-about-hate-crimes/chart> (검색일: 2023년 11월 01일).

<http://realfolkblues.net/?p=177> (검색일: 2023년 10월 24일).